



국내 갯벌면적 중 46%가 전남에 분포돼 있다. 광주기상청은 갯벌기후정보 분석·연구를 통해 전남 갯벌 양식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갯벌 온도 조사로 바지락·꼬막 산란시기 예측

광주기상청 '갯벌 기후정보' 3년 연구... '위험지수' 개발 예정

급격한 환경변화 과학적 분석 통해 갯벌양식 생산성 극대화

꼬막과 바지락으로 유명한 고흥과 벌교 앞바다가 광주기상청의 새로운 '일터'가 된 지 오래다.

광주기상청 직원들은 지난 3년 간 갯벌에 저중온도계를 묻고 변화하는 갯벌 온도를 파악해왔다.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갯벌 기후 정보 자료들은 이제 어민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보물상자'나 다름없다.

◇갯벌 온도로 바지락·꼬막 산란 최적 시

기 예측=광주기상청은 3년 전인 지난 2011년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갯벌 2㎢와 고흥군 표두면 납설리 0.5㎢ 일대 갯벌 등 10곳에 저중온도계를 묻었다. 5~10cm 깊 이에 끝이 둔온도계가 10분 간격으로 변화하는 갯벌 온도를 기록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온도 변화상을 모아 '갯벌 기후정보'를

만들어왔다.

갯벌 온도 변화와 바지락·꼬막 등의 산란시기, 폐사율 등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벌써 3년째다.

전남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 최대 규모로 전남에 국내 갯벌면적(2489.4㎢) 중 46%에 달하는 1154㎢가 분포된 만큼 연구를 통해 전남 갯벌 양식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에서 벌교(보성), 영남(고흥)의 기상청 AWS(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수집한 기상자료를 활용, 갯벌 외부 온도와 일시·량 등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언뜻 온도 수집 외에 별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어민들에게는 여간 '쓸쓸한' 정보가 아니라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이 자료를 통해 여태껏 확인하지 못했던 지역별로 다른 바지락과 꼬막의 산란시기를 알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바지락과 꼬막의 경우 알 크기가 50㎛ 이상, 비만도가 각각 35%, 25% 이상일 때 산란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고흥과 벌교는 4월 말로 조사됐다. 전북 고창은 10일 가량 늦은 5월 초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민들은 지금껏 바지락의 경우 5월 말~6월 초, 꼬막은 7월 말~8월 초가 산란에 좋은 시기로 추정해왔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결과다.

광주기상청은 "급격한 기후 변화 등으로 산란 시기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산란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과 상관 없이 정해져 있는 금어기 조정도 필요하다는 게 광주기상청의 입장이다.

온도계 효과 뿐 아니라. 바다와 접해 있는 갯벌 속 조개류의 경우 일사량이 생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강수량이 적을 경우 염도가 높아져 폐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다.

◇어민 소득 도움될까=기상청은 '갯벌 기후 정보'를 더 구체화 시킨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산란 시기에 관련된 정보에 이어 종폐(어린 조개류) 살포 시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어민들이 언제 종폐를 뿌리는 게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또 풍향·풍속·강수량·일조량 등 기상자료를 더해 '갯벌 위험지수' 개발도 구상하고 있다. 기상청의 갯벌 위험지수 개발이 현실화되면 조개류가 뜨거운 햇볕에 노출돼 폐사할 우려가 있으며 '폭염주의보'를, 혹한기에 얼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면 '동해 주의보'를 내려 어촌계나 자치단체에 전파할 수 있다니 얘기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어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보험 가입도 가능해져 어민 생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무등산국립공원 대표할 동식물 뽑아요"

15일까지 공원사무소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

### 털조장나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대표하는 동·식물이 시민들의 투표로 가려진다.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무등산을 대표할 동·식물인 '깃대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라 해당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종으로, 사람들이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생물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깃대종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등산 자생 동·식물 중 털조장나무와 으름난초 등 식물 2종과 수달과 담비, 두꺼비 등 동물 3종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깃대종 선호도 투표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http://old.knps.or.kr/events/mudeungwritre.do>)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주말, 무등산 중심 일원에서 텁방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스티커 부착 방식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이를 깃대종 최종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는 무등산의 깃대종 선정을 원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으름난초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희귀식물

관상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 수달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 담비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 두꺼비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 겨울 성큼... 얼어버린 무등산 '얼음바위'

지난 11일 아침 최저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무등산국립공원에 올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다. 사진으로 보이는 '얼음바위'는 무등산 7부 능선에 위치한 곳으로 광주에서 가장 먼저 얼음이 있는 곳이다.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 제공〉

# 오천경매투자

## 1. 경매 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는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

## 3. 돈 빌려 주실 분

- 제1순위로 설정
- 낙찰가의 80% 정도
- 년 15% 이상 이자 지급

## 2. 공동 투자 하실 분

- 5천만원 이상 투자
- 등기로 법적 보장
- 매매 할때까지 함께 함

## 4. 입찰 대리 하실 분

- 원하는 경매물건
- 최저가로 낙찰
- 최소 비용으로 처리

# 오피스텔 "급매"

## 1. 수기동 제일 OP, 29평

## 2. 20층 중 10층, 전망좋음, 내부 올수리

## 3. 현, 사무실 사용중

## 4. 융자 3500만원 정도 가능

## 5. 주차편리, 사무실겸 주거 가능

## 6. 시세/감정가 – 1억1천만원 정도

## 7. 매매가 – 6,500만원(일시불, 조정가)